

01 교회소식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

2022년 전반기 동안에도 은혜 주시며 지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되새긴 맥추감사절.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즉시로 순종하였으며, 축복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믿었다.

03 기획특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사랑의 기도, 진심한 기도, 선행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신속히 응답을 끌어내릴 뿐 아니라 영적 믿음의 성장도 신속히 이룰 수 있다.

04 간증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권능의 기도를 받은 후, 잘 걷지 못하던 아들이 걷고 뛰며 딸의 불안 증세가 없어지고 허리/다리의 통증을 사라지는 등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72호 2022년 7월 10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2022년 맥추감사주일 예배 및 성찬식



우리 교회는 지난 7월 3일, 맥추감사주일을 맞아 GCN 방송(www.gcntv.org)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맥추감사주일 예배 및 성찬식을 했다.

대예배는 ‘능력’(살전 5:23~24)이라는 제목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설교가, 저녁 예배에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골 1:10~12; 요 6:53~5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성찬식에 앞서 1부 예배 때 이수진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을 활레 하여 마음 발을 옥토로 일궈야 하고, 지적이나 책망 또는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제해 버리고 변화되어야 하며,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전하며, 모든 수고와 인내가 하나님

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원했다.

이수진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2부 성찬식은 각 예배실과 지성전은 물론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국내외 수많은 성도가 함께했다.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인자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준비해 성찬식에 임하며 주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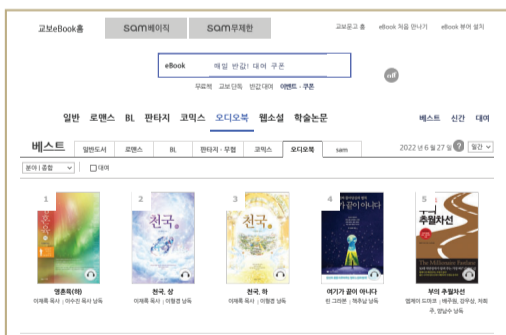
2022 만민 하계수련회

불가능이 없는 믿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강사: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 이복님 원장
기간: 2022년 8월 1일(월) ~ 3일(수) 장소: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영혼육』(하), 『천국』(상)(하) 교보문고 오디오북 베스트셀러 기록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영혼육』(하)와 『천국』(상)(하) 오디오북이 교보문고 오디오북 부문 일간 종합 베스트셀러 1, 2, 3위에 나란히 올라 화제다.

그뿐만 아니라 6월 넷째 주 주간 베스트셀러 인문/사회/역사 부문에서도 1, 2, 3위에 올랐으며 6월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에도 진입했다(사진).

『영혼육』(하)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낭독했으며, 『천국』(상)(하)는 GCN방송 등에서 내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형경 집사가 낭독했다.

한편, 『천국』(상) 오디오북은 발간 직후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천국』(하) 발간으로 동반 상승하게 되었다. 이 외에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사랑은 율법의 완성』,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혼육』(상)도 교보문고 오디오북 부문 월간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른 바 있다.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기에 사랑받는 오디오북은 인터넷 교보문고와 네이버(오디오 클립)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하계수련회를 앞두고 7월 ‘작정 다니엘 철야’ 개최

8월 만민 하계수련회와 성전 이전, 2022년 기도 제목을 위해 7월 10일 주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21일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작정 다니엘 철야’가 개최된다.

이 기도회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금요일은 금요일철야예배) 각 성전에서 진행되고,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

org) 생방송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개척 때부터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

21일 작정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통해 각종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령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전 세계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동참하고 있다.

포토뉴스

“인도에서 힌디어 ‘만민뉴스’ 통해 은혜받고 있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

아브라함의 선(善)_2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 저가 하나님에 능히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브리서 11:17~19)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선은 관용과 양심의 마음, 사심이 없고 정직하며 성실한 마음 외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행함을 보인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라 하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해도 순종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순종하는가 하면,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또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도 한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고, 아무리 주변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절대 의심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아브라함은 마음이 선하되 특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다고 인정하시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벼’이 되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설령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자기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 12:1) 하셨을 때 즉시 순종합니다. 삶의 터전과 가족, 친척을 뒤로하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낯선 곳을 향해 떠나지요. 하나님과 원수 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금의 머뭇거리도 없이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함은 첫 시험인 이때부터 약속의 씨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지막 시험까지 계속됩니다.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

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1~2)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독자 이삭에 관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아내 사라에게 알리지도 않았지요. 이삭에게도, 함께한 사환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떠났던 것을 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떠한 육신의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는 “본토를 떠나라.”하신 말씀에 순종한 차원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하나님 뜻을 모른 채 무조건 순종했다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지 않아도 능히 그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히브리서 11장 17~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미리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이 됐어도 습관을 좇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쁘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단 순종부터 하면, 그다음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십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기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일도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형통하고 순적하게 풀어 주시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은 결국 우리를 잘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면 복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 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것이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무조건 순종하되 즉시로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내보여야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라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과 뜻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에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믿는 마음

어떤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빨리 해 달라고 재촉하고 자신이 바라는 때에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합니다. 이와 달리 선한 마음을 지닌 자녀는 부모를 믿고 잠잠히 기다리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빨리 주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도리어 자신이 먼저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편케 해 드리지요. 이처럼 육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해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다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면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므로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비록 자기 생각보다 축복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기다림의 시간도 기쁨과 감사로 보낸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여기실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는 65세로 이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주십니다(창 13:16, 15:5). 하지만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p>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p> <p>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p>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p>
--	--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

지옥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내 사라가 참지 못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1년 후에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두 사람은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였습니다(롬 4:19-21).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대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고, 또한 이삭이 낳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무수한 믿음의 후손을 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 그 당시에는 좋아하다가 얼마의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

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입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으로 받고 선한 마음으로 지켜 오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실 모든 영광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되 자신이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음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허락된 연단을 받는 과정에서 육과 악이 발견되는 자신을 보며 낙심해 힘을 잃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이런 내 마음과 모습으로 언제 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포기하고 절망한

다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지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입고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선을 본받아 여러분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 세세토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신속한 응답의 비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시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딤후 2:4)의 애절한 마음을 알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소식을 들으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으로 뜨겁지요.

만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치료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한다면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긍휼하심을 입으니 능히 기도의 응답을 끌어내리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물, 주님의 심장으로 절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함으로 신속한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며 성실함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라 하여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실 다해 성실함으로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진실한 기도를 하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도할 내용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중언부언하지 않고 섬세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함으로 구체적인 항목들이 떠오릅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일꾼들과 재정, 날씨, 무엇보다 참석하는 영혼들이 은혜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지요.

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자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기도를 할 때는 힘써 부르짖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는 뜨겁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으며(마 6:33), 믿음의 성장도 신속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죄악을 버리고 선한 기도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한 대로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니 응답받지 못합니다. 더욱이 행함으로 죄를 범했다면 더더욱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말 1:10).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잠 8:13)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됩니다(살전 5:22).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마음에 악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에 맞지 않는 일을 만나면 여전히 서운해하고 불편해하며 시기 질투한다거나,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상대가 마음에 걸리며 다투고 헐기 낸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열납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초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고려하여 그의 기도를 받으실 수 있지만, 진정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선과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악을 버리고 선한 기도의 향을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새신자들의 행복한 간증

“차곡차곡 쌓인 주님의 은혜가 저를 이끄셨어요”



사라 아피요 성도 (40세)

제 딸 모린은 2016년부터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당시 아홉 살이었는데 교회를 무척 사랑했고, 담임 정명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요. 또 한국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사진을 가슴에 대고 잠을 잤고, 아플 때면 사진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료받곤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했지만, 이런 딸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만민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였기에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였지요. 그런데 딸을 전도한 자넷 집사가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딸에게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교통비를 주고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곳은 슬럼가로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녀가 변함없이 딸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꿈을 꾸었는데, 나이로비 만민교회 정명호 목사님께 서 큰 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을 꾀 뒤 만민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고 더 이상 딸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딸이 세례받은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해 딸을 축하해 주는 자넷 집사를 보며 수년간 사랑과 정성으로 딸을 대하는 그녀에게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저는 5월 8일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꿈에서 본 것과 같이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었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시니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주님의 은혜가 저를 만민으로 이끄신 것이지요.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알아가는 요즘,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잘 걷지 못하던 아들이 기도 받은 후 걷고 뛰어요”



수잔 성도 (45세)

제 아들 케이트릭 멘데스(19세)는 2021년부터 다리와 등에 힘이 없고 무릎이 약해 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했고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아서 기숙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시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지요. 병원에서는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받았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보아스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2022년 5월 29일 주일 나이로비 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 저는 예배 후 담임 정명호 목사님께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정명호 목사님께서 제 아들에게 손을 얹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해 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기도 받은 즉시 걷고 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기뻐고, 이를 본 성도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그 뒤 아들은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린 딸의 걱정과 불안 증세를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최미령 집사 (41세, 중국 1교구)

제 딸 시영이(10세)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눈만 뜨면 휴대폰을 찾으며 가까이했습니다. 게임과 유튜브 시청으로 점점 예배드리기도 싫어했지요.

그러던 2022년 5월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자주 울었고 잦은 걱정과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들이 자기 카톡을 본 것 같다고 불안해하며 울더니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더 크게 우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2일, 시영이는 할머니를 따라 중국 대교구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시영이의 가슴과 이마에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기도해 주셨지요. 그 뒤 시영이는 걱정과 불안 증세가 사라져 이제는 울지 않고 행복해합니다. 다니엘 철야 때 성령의 불을 받은 뒤로는 충만히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아이가 되었지요. 할렐루야!

“척추 틀어짐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 통증이 사라졌어요”



김복자 집사 (64세, 중국 2교구)

저는 위염, 중이염, 머리와 어깨 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지요.

2021년, 어느 날부터인가 목과 어깨,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았더니 척추가 틀어져서 그렇다고 하였지요. 주사 맞으며 치료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들어와서는 허리와 다리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2022년 3월 25일, 저는 GCN방송을 통해 금요철야예배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상대를 미워하고 판단했던 것들이 떠올라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이후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은 뒤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통증이 심하던 다리도 시원해지더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꿇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